

20230307 회의 결과

1) 프로젝트 주제 (제안)

1. 인물사진 -> 캐릭터화 (방식은 기존의 방식)
 - ↳ 간편하게 사진 한장을 찍으면 그것을 바로 AI를 통해 캐릭터화
 - ↳ 인물과 배경을 구분, 배경과 악세서리 등을 AI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함 (좀 더 구체적)
 - ↳ 차별성 : 캐릭터풍을 다양하게 가능, 배경과 악세서리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

2. 마케팅 광고 영상 제작 (방식은 기존의 방식) : 제품에 대한 사진 몇장과 키워드, 제품 설명으로 ChatGPT를 통해 시나리오 작성 기존의 제품 사진과 ChatGPT의 시나리오를 통해 마케팅 광고영상 제작

3. 수화번역기 : 수화에 잘 모르는 일반인 혹은 수화를 처음 배우는 장애인을 대상. 수화를 인식하여 이를 문장으로 표현, 또한 문장을 입력하여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함. (근데 타이핑하면서 드는 생각, 이렇게 되면 굳이 수화를 표현해야하는가? 필답이 더 나은 것 같기도....)

4. 동화 생성 : ChatGPT를 통해 동화를 생성 (불완전하기에 조정해야함) 사진을 붙여서 하나의 동화로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낸 동화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출력

5. 옷 착용 검색 : AI도 착용한 옷 및 신발을 구분 이를 구글이미지 검색을 활용하여 결과를 화면에 표시

2) 프로젝트 담당 교수님 후보

1. 허중욱 교수님 - 사실상 유력후보 아니신가 생각함.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야와 맞아 떨어지는 교수님
2. 정태경 교수님 - 인공지능융합학부로 우리와 학과가 다르다. 담당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 담당하실 수 없다면 조언을 구하는 쪽으로 생각중

- 아니면 우리 캡스톤 디자인 담당 교수님인 박승용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교수님을 추천받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결론

1. 3월 9일까지 팀 인원 및 프로젝트 주제 제출 오늘까지
2. 캡스톤 디자인 담당 교수님이신 박승용 교수님께 이메일로 문의를 드려서 현재 나온 5가지 주제를 줄이고 간소화
3. 개발 자문 관련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

①

③

④

"기술을 잘 생각"
"이런걸 할 건지?"
"이런 방법을 할 건지?"
"그런데 필요한가?"

이런일이 있으면

아마가 일하고보면

캡스톤 리드 방식 => 학생들 원할 때만. (일정맞춰서)
=> 관련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력을 남기는 거!
=> 취업할 때 자랑할만한 기술 등

"스마트 폰과 처리하기 보라, 소스를 가져오게 할 것!"
=> 본인의 역할이 뭘게이지 않게!
기교수님의 의견 < 학생들과의 조율.
=> 참신성은 후순위, 기술적인 값이에 관련. 프로젝트를 다듬을 것.
=> AI를 한다면 해당분야에서 역할 맡도록 할 것.

- 이메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아함.
- 영상 생성은 좀 힘들듯.
- 동화프로젝트 -> 연동할 수있음 등.

계획서, 프로포저,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 메일을 보내고 연락받게 할것.